

# 심층분석보고서

대우건설-안전

2026.04.26

#### 1장: 산업(섹터) 분석

##### 1-1. 시장 구조와 거시 환경: 부동산 PF 위기와 해외 수주 호황의 양극화

한국 건설업은 GDP 약 15%를 차지하는 거대 산업입니다(2021년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추산). 그러나 2025년은 부동산 PF 위기와 안전·ESG 규제 강화가 함께 산업 전반을 흔든 변곡점이었습니다. 2024년 1월부터 10월 까지 누적 인허가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9.1% 줄었고, 미분양 6만 6,776호 가운데 '준공 후 미분양'이 1만 4,464호로 누적되며 부도 건설업체 수가 2021년 12개에서 2023년 21개로 늘어났습니다. 삼일PwC는 부실 PF 사업장을 약 500개소, PF 대출잔액을 512조원으로 추산합니다. 반면 해외 건설 수주는 2025년 472억 7,000만 달러로 11년 만의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체코 두코바니 5·6호기 원전 단일 사업이 187억 2,000만 달러에 달하며 산업 전체 수치를 견인했습니다. 즉 국내 주택 시장은 침체 국면이고 해외·플랜트·원전·인프라 시장은 호황 국면이라는 양극화가 산업의 지형을 다시 그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환경에서 안전관리는 비용 항목이 아니라 기업 존립을 결정하는 1순위 변수로 자리잡았습니다. 부도 위험에 놓인 사업자가 안전 투자를 줄여 사고가 늘면, 사고가 다시 신용평가와 발주 자격을 떨어뜨려 부도 위험을 키우는 악순환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 1-2. 중대재해처벌법 4년차의 누적 위력

2022년 1월 27일 시행 이후 2025년 5월까지 수사 700건 이상, 검찰 기소 약 90건이 누적됐습니다. 건설업 1호 판결은 2023년 4월 6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이 온유파트너스 대표에게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나왔습니다. 2025년 6월에는 창원지법이 처음으로 항소심 실형을 선고했고, 8월 대전 첫 사례에서는 건설사 대표 징역 10개월·현장소장 6~8개월 실형이 나왔습니다. 2024년 1월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그러나 정작 매일노동뉴스가 중대재해 발생 4년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망자 2,436명 가운데 실형 비율은 6%에 그쳤습니다. 처벌의 강도와 별개로 법의 그늘 자체가 산업 운영의 표준 절차를 바꿔놓고 있다는 점이 본질입니다. 즉 처벌의 통계적 빈도보다, 모든 시공사가 'CSO 임명·이사회 안전 안건 보고·서면 의사결정 흔적 남기기·작업중지권 즉시 발동' 같은 새로운 표준 운영 절차를 일제히 도입했다는 사실이 산업 변화의 본질입니다. 회사 입장에서 보면, 사고 후 처벌 가능성은 중간 수준이지만 사고 후 ESG 등급 하락·발주처 입찰 배제·신용평가 부정 영향이라는 부수 비용은 확정적이라는 인식이 자리잡았습니다.

##### 1-3. 건설안전특별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추가 입법 압박

문진석 의원은 2025년 9월 22일 건설안전특별법을 보완 재발의했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발주자 책임을 명시해 국내 최초로 적정 공사기간과 공사비 산정 의무를 부과합니다. 둘째, 사망사고 발생 시 매출 최대 3% 과징금(상한 1,000억원)을 부과합니다. 셋째, 영업정지 최대 1년·누진율 부과 체계를 도입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역시 안전보건공시제 대상을 500인 이상에서 300인 이상으로 확대하고, 원청에게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입니다. 정부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통해 위험작업 도급 제한, 작업중지권 완화, 공동위 의무화도 추진합니다. 이런 흐름은 시공사 입장에서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 발주처가 안전 책임을 함께 지게 되면서 발주처가 시공사 선정 단계에서 안전 거버넌스 수준을 강도 높게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과징금 상한이 1,000억원에 달하면서 사고 1건의 잠재 손실이 한 현장 영업이익을 가볍게 넘어서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그 결과 안전 부서의 의사결정 권한이 점점 확대되고, 안전관리자의 작업중지 결정에 대한 현장소장의 반발이 줄어드는 분위기가 자라고 있습니다.

### 1-4. ESG 평가의 'S' 강제력과 시공능력평가의 연동

한국ESG기준원(KCGS)은 2025년 10월 1일 가이드를 개정해 '중대재해 발생 시 ESG 평가에 즉시 반영'하는 것을 명문화했습니다. 2025년 4분기에만 사회책임경영(S) 위협으로 9개사가 등급 하향했습니다. 시공능력평가에도 이 영향이 본격 반영되어, 2025년 1월 안성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사망 4·부상 6)를 일으킨 현대엔지니어링은 시평 4위에서 6위로 추락했습니다. 한 사고가 ESG 등급, 신용평가, 시공능력, 발주처 입찰 자격, 자금조달 비용까지 연쇄 영향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ESG의 사회 영역은 평판 마케팅이 아니라 재무 변수로 변모했습니다. 이는 건설사 IR 자료에서 안전·보안이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와 일치합니다. 5년 전만 해도 IR 자료의 부속 챕터로 다뤄지던 안전·보건 항목이, 이제는 매출·영업이익 다음 자리에서 별도 챕터로 등장합니다. 즉 안전관리자는 회사의 IR 스토리텔링에 핵심 데이터를 공급하는 역할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 1-5. 통계가 드러내는 절박한 현실

2024년 전체 산재 사망자 589명 가운데 건설업이 276명으로 1위 업종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시공능력 10대 건설사의 사고재해자는 2020년 1,460명에서 2024년 2,571명으로 늘어 5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사고사망자 역시 2023년 10명에서 2024년 21명으로 110% 반등했습니다. 정부의 '산재와의 전쟁' 1년이 지나고 도 건설 현장 사망자가 줄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이학영 의원의 일침이 본질을 짚습니다. "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해, 건설 현장 노동자들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 즉 처벌만 강화한다고 사고가 줄지 않는다는 인식이 정부와 업계 양쪽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사고의 80% 이상이 협력사 작업 단계에서 일어난다는 통계, 외국인 노동자 사망 비율이 매년 늘고 있다는 통계, 추락 사고가 사망 사고의 절반을 넘는다는 통계는 안전관리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산업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 1-6. 안전관리자 위상의 변화와 스마트 안전기술 트렌드

이런 구조적 압박은 안전관리자의 위상을 근본부터 바꿨습니다. 과거 '서류 정리·현장 잔소리꾼'이라는 인식은 사라지고, 정부 정책상 2025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비율이 평균 19% 인상됐으며,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비율 한도는 2025년 70%에서 2026년 100%로 확대됐습니다. 안전관리자는 회사의 전략적 자원으로 격상됐습니다. AI 영상분석, 웨어러블 디바이스, 드론 안전점검, 디지털 트윈 기반 시뮬레이션이 시공 단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정부도 스마트 안전장비 보조금 지원 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도입은 안전관리자의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점검표를 들고 현장을 도는 것이 일상이었다면, 이제는 본사 통합관제센터에서 AI CCTV가 자동 식별한 위험 신호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위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작업조에 알림을 보내며, 사고 후 영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원인을 분석하는 일이 추가됐습니다. 안전관리자가 '데이터 운전자'로 변모하는 흐름이며, 이 변화는 향후 5년 이내에 안전관리자 직무의 가장 큰 변별 요소를 만들 흐름입니다.

### 1-7. 가치사슬과 산업 안의 안전관리 위치

건설업 가치사슬은 발주처(공공·민간), 시행사, 시공사(원청), 협력사(하도급), 자재·장비 공급사, 감리·감독, 보험사, 그리고 입주·운영 단계의 시설관리사로 이어집니다. 안전관리는 이 사슬 가운데 시공사 단계의 책임이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 제64조 협의체 의무, 제66조 시정조치 권한, 그리고 발주자 책임을 명시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입법 흐름까지 더해지며 책임 범위가 위·아래로 함께 넓어지고 있습니다. 즉 시공사 안전관리자는 자사 임직원뿐 아니라 협력사 임직원, 협력사의 협력사, 외국인 노동자, 일용직 근로자까지 망라하는 다층 책임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안전관리자는 자신을 둘러싼 가치사슬 모든 구성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작업중지권의 발동, 시정조치 요구, 협력사 평가 의견 제시, 본사 안전실 보

## 심층 분석 보고서: 대우건설-안전

고를 통한 자원 동원이 그 권한입니다.

### 1-8. 산업 흐름의 구조적 시사점

이 모든 흐름을 합치면 한 가지 결론이 나옵니다. 한국 건설업은 향후 5년 안에 안전관리 역량이 평균 이하인 사업자가 시장에서 도태되는 강제 구조조정 국면에 들어섰다는 점입니다. 시공능력 상위 사업자는 안전 거버넌스, 스마트 안전기술, 안전 자산 투자를 한 번에 확대해 격차를 벌리고 있고, 중소·중견 사업자는 비용 부담을 이기지 못해 부도·합병 위험이 커집니다. 이 구조는 안전관리자의 직업 안정성과 시장 가치에 정반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시공능력 상위 회사의 안전관리자는 임원 트랙이 빠르게 열리고 채용 수요가 늘어나는 호황 국면에 진입했고, 중소·중견 사업자의 안전관리자는 부도·해고·이직이라는 위험에 노출됐습니다. 즉 같은 안전 직무라도 어디에서 일하느냐에 따라 향후 10년의 커리어가 크게 갈리는 시기입니다.

## 2장: 주요 기업 비교 및 대상 회사 포지셔닝

### 2-1. 2025년 시공능력평가가 보여주는 새로운 지형

2025년 7월 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시공능력평가 결과는 산업 지형을 한 장으로 요약합니다. 삼성물산이 34조 7,000억원으로 12년 연속 1위를 차지했고, 현대건설이 17조 2,000억원으로 2위, 대우건설이 11조 9,000억원으로 3년 연속 3위를 유지했습니다. DL이앤씨와 GS건설(검단 사고 후 회복세)이 4·5위에 올랐고, 현대엔지니어링은 안성 교량 사고 여파로 6위로 추락했으며, 그 뒤를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SK에코플랜트, HDC 현대산업개발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사고가 시공능력 순위를 떨어뜨리는 변수로 본격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대우건설은 토목공사업 부문 2024년 실적 기준 2조 4,573억원으로 단독 1위, 도로·택지조성에서도 1위를 차지하며 토목 강자 포지션을 굳혔습니다. 시공능력평가의 변동성이 5년 전과 비교해 크게 늘었다는 점도 의미가 있습니다. 사고와 ESG라는 변수가 본격 반영되면서, 한 번의 중대재해가 한 회사를 두 자리 순위 이상 떨어뜨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 2-2. 대우건설의 모순: 토목 1위와 안전 최약체의 공존

문제는 안전입니다. 매일노동뉴스가 2026년 4월 22일자 보도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주)대우건설은 14건의 사고로 15명이 숨진 최다 사업장입니다. 이학영 의원실 자료 기준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누적 사고사망자는 현대건설 17명, 롯데건설 15명, 대우건설 14명, DL이앤씨 13명 순이고, 누적 사고재해자는 대우건설이 1,931명으로 단일 최다입니다. 박용갑 의원이 공개한 2024년 단년 사망자(시공능력 20위 기준)에서도 대우건설 7명이 1위로,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캠페인단의 '2025년 최악의 살인기업' 공동 2위(한국전력공사와 함께)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즉 대우건설은 토목 1위라는 영광과 안전 최약체라는 그림자를 함께 안고 있습니다. 이 모순은 단지 운이 나빴다는 차원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토목·플랜트가 자체로 위험도 높은 작업이 많은 분야이며, 해외·대형 프로젝트가 많을수록 변수가 늘어난다는 사업 구조적 특성이 한 축을 차지합니다. 다만 같은 사업 구조에서도 삼성물산이 2년 연속 사망자 0명을 만들어낸 것을 보면, 사업 구조 탓만으로 대우건설의 사고를 설명할 수는 없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거버넌스, 자원 투입, 협력사 관리 체계의 차이가 결과를 갈랐습니다.

### 2-3. 10대 건설사 안전 거버넌스의 양극화

10대 건설사 안전 거버넌스는 명확하게 양극화됐습니다. 더벨 서베이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안병철 부사장(CSO·2022년 12월 선임)이 작업중지권 누적 58만 건을 행사했고,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 연속 사망자

## 심층 분석 보고서: 대우건설-안전

0명을 이어갔으며, 2024년 안전보건 비용 1,717억원을 집행했습니다. 업계 톱 사례입니다. GS건설은 2026년 3월 김태진 CSSO를 사장 각자대표로 선임해 안전 책임자를 사실상 공동 CEO 격으로 격상시켰습니다. 포스코 이앤씨는 CSO 출신 송치영을 대표이사로 승격시켰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화정 아이파크 붕괴 후 정익희 부사장을 각자대표로 영입했습니다. 즉 10대 건설사 가운데 안전 책임자가 사장급으로 승격된 회사가 늘고 있고, 이는 책임자 위상의 격상이라는 산업 트렌드를 반영합니다. 이런 격상은 단지 직위의 변화가 아니라 의사결정 구조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안전 책임자가 사장급일 때, 작업중지 결정과 협력사 교체 결정이 영업 부서의 압박에 흔들리지 않고 빠르게 실행됩니다. 같은 사고가 발생해도 의사결정 속도와 일관성이 다르며, 이것이 사망사고 0명과 매년 두 자리 사망자라는 결과의 차이를 만듭니다.

### 2-4. 대우건설의 거버넌스 응답: 충분한가, 늦은가

대우건설 역시 CSO를 CEO 직속 전무급으로 운영합니다. 민준기에서 김영일을 거쳐 신동혁 전무가 2025년 현재 자리를 맡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에는 본사·현장 총괄 안전 임원 2명을 추가 선임했고, 이사회 사외이사 과반을 안전 전문가로 구성해 안전·보건 계획을 매년 이사회에서 승인받는 거버넌스를 갖췄습니다. CSO 점검 횟수는 2023년 22회에서 2024년 69회로 늘렸습니다. 월 1회에서 주 1회로 점검 빈도가 빨라졌습니다. 2026년 CEO·CSO 현장 안전점검은 연 155회가 계획됐습니다. 그럼에도 2025년 9월 4일부터 9일까지 단 5일 사이에 울산 LNG터미널과 시흥 푸르지오 디오션에서 연속 사망사고가 일어났고, 김보현 대표는 9월 10일 사과문을 발표하며 전국 110여 개 현장 작업을 멈춰 세웠습니다. 사과문은 다음과 같이 인용됩니다. "전 현장 작업을 중지하고 안전 관리시스템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미비점을 전면 개선하고 최고안전책임자(CSO)가 현장의 안전 대비 상태를 확인 후 작업 중지 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 9월 17일 노사 합동 'CLEAR 안전문화 실천 결의대회'를 열었으나, 일부 매체는 "소 잃고 외양간"이라 비판했습니다. 거버넌스 응답의 속도와 깊이가 충분했는지에 대한 평가는 향후 1~2년 사고 추이로 갈릴 전망이다. 다만 110여 개 현장 일제 중지라는 결정 자체는 산업 안에서 흔치 않은 강수였으며, 김보현 사장의 군 출신 의사결정 스타일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습니다.

### 2-5. 중흥그룹 인수 4년의 명암

중흥그룹은 2021년 12월 대우건설을 인수가 2조 671억원에 사들였습니다. 지분 구성은 중흥토건 40.6%·중흥건설 10.15%로 합산 50.75%였습니다. 4년 성적표는 명암이 갈립니다. 시공능력은 6위에서 3위로 회복됐습니다. 매출은 2021년 8조 6,900억원에서 2023년 11조 6,500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부채비율은 2024년 192%에서 2025년 285%로 급등했고, 2025년에는 10년 만의 영업적자(△8,154억원)를 기록했습니다. 4분기 빅배스 1조 1,055억원이 결정타였습니다. 미분양 대손충당금 5,500억원, 이라크 사업 손실 2,200억원, 싱가포르 사업 손실 2,100억원, 나이지리아 사업 손실 1,500억원으로 구성된 빅배스는 김보현 신임 사장이 취임 1년차에 부실을 한꺼번에 털어내는 결단을 내렸음을 의미합니다. 빅배스 자체는 회계상의 결정이지만, 그 의미는 회계를 넘어섭니다. 김보현 체제가 과거 누적 부실을 자기 책임으로 떠안은 뒤 이후 실적은 깨끗한 출발선에서 시작하겠다는 메시지와, 자본시장은 이를 긍정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26년 1분기 들어 주가가 빠르게 반등한 배경에는 이러한 회계적 결단에 대한 신뢰가 자리합니다.

### 2-6. 오너 가족 경영체제의 자리잡기

정창선 회장에서 정원주 회장으로, 그리고 김보현 사장으로 이어지는 오너 가족 경영체제가 자리잡았습니다. 정원주 회장은 중흥토건 100%를 보유하며 해외영업을 본인이 챙기고 있고, 김보현 사장은 정창선 회장의 사위로 공군 준장 출신이며 전투기 비행시간 3,537시간 무사고 기록을 남긴 인물입니다. 군 출신 CEO에게 안전이 생명선이라는 메시지가 진정성 있게 들리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2026년 들어 주가는 4월 13일 기준 521.7% 급등하며 "건설주에서 원전주로 재분류"되는 시장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KB·LS·BNK 증권사 리포트). 즉 시장은

## 심층 분석 보고서: 대우건설-안전

영업적자라는 단기 충격을 빅배스로 소화하고, 체코 원전을 비롯한 차세대 동력에 가치를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정창선 회장의 손자 정정길씨가 입사 1년 만에 부장으로 합류해 이후 상무A로 승진한 사례는 3세 경영의 시동이라는 시그널이며, 이것이 견제 장치 강화 또는 약화 가운데 어느 쪽으로 작동할지가 향후 1~2년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 2-7. 경쟁사 대비 대우건설의 차별 포지션

비교 관점에서 대우건설의 차별 포지션은 네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토목·플랜트 강자입니다. 국내 LNG 생산 플랜트와 저장 탱크의 약 50%, 전세계 LNG 액화설비의 약 1/10을 시공한 LNG 강자이며, 거가대교(국내 최초 침매터널·세계 최장)를 비롯한 토목 기술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둘째, 원전 종합 사업자입니다. 1991년 월성 3·4 호기부터 30여 개 원전 프로젝트 이력을 보유하며, 체코 두코바니 사업의 시공 주간사로서 SMR과 원전해체까지 전주기 공약을 표방합니다. 셋째, 해외 네트워크입니다. 1977년 이후 아프리카 누적 320억 달러 프로젝트의 네트워크를 지렛대로 나이지리아 LNG Train 7, 이라크 알포 신항만, 베트남 THT 스타레이크 신도시, 투르크메니스탄 미네랄비료 플랜트 같은 거점 사업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넷째, 푸르시오 브랜드입니다. 2025년 1만 8,834가구 공급으로 2년 연속 주택공급 1위를 기록했고, 2026년 한남2구역에서 글로벌 설계사 'JERDE(저드)'와 협업하며 하이엔드 라인 '써밋(SUMMIT)'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네 영역은 각자 자체로 안전관리의 난이도가 높은 분야입니다. LNG 플랜트는 폭발성·유독성 위험을 함께 안고 있고, 원전은 방사선 안전이라는 별도 영역을 추가로 다루며, 해외 사업은 현지 노동법과 문화 차이로 인한 변수를 만듭니다. 즉 대우건설 안전관리자는 평균적인 시공사 안전관리자보다 더 다양한 위험 영역을 다루는 환경에 놓입니다.

### 2-8. 최근 1~6개월 이슈 정리

최근 1~6개월 사이 대우건설 관련 주요 이슈는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2025년 9월 시흥·울산 연속 사망사고와 110여 개 현장 작업중지 결정. 2025년 11월 본사·현장 총괄 안전 임원 2명 신규 선임. 2026년 1월 5일 김보현 사장 신년사를 통한 'Hyper E&C' 비전 선포. 2026년 2월 빅배스 영업적자 8,154억원 공시. 2026년 3월 일본 인프라 협력 MOU. 2026년 4월 글로벌인프라본부 신설과 원자력사업단 CEO 직속 편제. 2026년 4월 23일 상반기 신입사원 70여명 공채 발표. 이처럼 안전, 재무, 조직, 채용, 사업이 함께 움직이는 변혁기가 진행 중입니다.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이만한 결정이 한꺼번에 내려진 사례는 한국 대형 건설사 가운데 흔치 않으며, 이는 김보현 체제가 변화의 속도를 의도적으로 끌어올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 3장: 대상 회사 심층 분석

### 3-1. 김보현 체제의 메시지: 일관성과 절박성

김보현 사장의 메시지는 일관됩니다. 2024년 12월 17일 취임사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 가족을 지킨다'라는 각오로 정성을 다해 현장 관리를 하자. 안전이 확보돼야 실적과 성과도 의미가 있다." 2026년 1월 5일 신년사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안전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생명선이다." "안전은 비용이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존립과 직결된 가치다." 군 출신 CEO 특유의 명확한 어휘와 일관된 어조가 메시지의 진정성을 더합니다. 2026년 경영방침 'Hyper E&C'는 다음 흐름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Hyper Safety(초안전)는 스마트 기술 기반 선제적 예방시스템을 의미합니다. 둘째, Hyper Quality(초품질)는 압도적 시공 품질과 섬세한 마감을 추구합니다. 셋째, Hyper Connect(초연결)는 BIM과 AI 디지털 전환을 가리킵니다. 안전이 첫 번째 순서로 명시됐다는 점이 중요한 시그널입니다. 한국 대형 건설사가 신년 경영방침에서 안전을 1순위 키워드로 올린 사례는 흔치 않으며, 이는 김보현 체제가 안전을 영업과 같은 본업의 영역으로 다루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3-2. 사업 포트폴리오와 매출 구조

사업 포트폴리오는 주택건축이 약 68%(5조 5,084억원), 토목 17%(1조 4,041억원), 플랜트 10%(8,411억원)로 구성됩니다(2025년 기준). 주택 의존도가 높아 미분양 충격에 취약했고, 이것이 빅배스의 도화선이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신규수주 14조 2,355억원(전년 대비 +43.6%)과 수주잔고 50조 5,968억원(연 매출 6.3년 치), 2026년 신규수주 목표 18조원(창사 이래 최대)이 반등 모멘텀을 형성합니다. 즉 단기 실적 충격에도 중기 수주 파이프라인은 견조하며, 2026년 하반기부터는 해외·플랜트·원전이 매출 비중을 끌어올려 주택 의존도를 낮춰갈 가능성이 큼니다. 사업 포트폴리오의 변화는 안전관리의 우선순위 변화로 이어집니다. 주택 비중이 줄고 플랜트·원전 비중이 늘면, 추락 사고 중심의 위험 관리에서 폭발·화학·방사선 사고 관리로 위험 매트릭스가 확장됩니다. 안전관리자에게 요구되는 자격증과 교육 이수 항목 또한 위험물산업기사·가스기사·원자력안전 교육 같은 인접 영역으로 확대됩니다.

### 3-3. 신사업과 해외 사업의 디테일

신사업과 해외 사업의 디테일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체코 두코바니 5·6호기 원전(약 26조원, 대우건설 시공 주관사·시공 몫 최대 7조원으로 증권가 추정)은 한수원·체코전력공사(EDU II) 정식 계약(2025년 6월 4일) 이후 시공 본계약이 2026년 상반기 예정입니다. 나이지리아 LNG Train 7은 EPC 원청 자격 국내 최초 참여(약 2조 1,000억원). 이라크 알포 신항만은 누계 4조 9,200억원 수주, 이라크 해군기지는 약 1조 8,000억원. 베트남 THT 스타레이크 신도시는 하노이 서호 인근 186만 3,000m<sup>2</sup> 부지에 '하노이의 강남'으로 불리는 복합도시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투르크메니스탄 미네랄비료 플랜트(9,401억원)는 정원주 회장이 영업을 챙긴 결과물입니다. 데이터센터 사업도 본격화되어 전남 장성·강진 클러스터 500MW MOU를 체결했고, 2026년 4월에는 'AI 데이터센터 TFT'를 신설했습니다. SMR(소형모듈원자로) 사업은 한수원·한전KPS와 협력 체계를 갖췄습니다. 2026년 4월에는 '글로벌인프라본부'를 신설(해외사업단과 원자력사업단 통합)하고 원자력사업단을 CEO 직속으로 편제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이러한 해외 거점 확대는 안전관리의 난이도를 한 단계 끌어올립니다. 현지 노동법, 종교 휴일, 기후 조건, 의료 인프라, 비자 행정, 비상 의료 후송 같은 변수들이 안전관리 계획서에 반영되어야 하며, 한국 본사 안전실은 해외 거점 안전관리자와의 시차를 고려해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 3-4. 차별화 강점의 다층 구조

차별화 강점은 여러 영역에 걸쳐 분명합니다. LNG 분야에서는 국내 생산 플랜트와 저장 탱크의 약 50%, 전세계 LNG 액화설비의 약 1/10을 시공한 이력이 있습니다. 토목 분야에서는 거가대교(국내 최초 침매터널·세계 최장)를 비롯한 기술 자산이 풍부합니다. 원전 분야에서는 1991년 월성 3·4호기를 비롯해 30여 개 프로젝트 이력이 쌓여 있습니다. 해외 네트워크 측면에서는 1977년 이후 아프리카에서 누적 320억 달러 프로젝트를 수행한 이력이 자산입니다. 푸르지오는 2025년 1만 8,834가구 공급으로 2년 연속 주택공급 1위, 2026년 한남2구역에서 글로벌 설계사 'JERDE(저드)'와 협업하는 등 하이엔드 라인 '써밋(SUMMIT)'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강점은 단기에 만들어진 자산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 누적된 기술 자본입니다. 신입 안전관리자가 입사 후 가장 먼저 마주하는 환경 가운데 하나가 이 자산의 무게이며, 이는 곧 책임의 무게와도 통합니다. 30년 누적 LNG 시공 경험을 가진 회사에서 LNG 현장 사고가 일어나면 평판 손상의 폭이 평균 회사보다 훨씬 큼니다.

### 3-5. 안전 정책의 디테일

안전 정책의 디테일은 회사 자산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영역입니다. 대우건설은 국내 건설업 최초로 ISO 45001 인증(BSI)을 획득했으며, 자체 'CLEAR' 안전문화를 운영합니다. CLEAR는 Commitment(안전에 대한 약속), Listen&Speak(경청하고 말하는 안전), Eliminate(위험요인 제거), Appreciate(안전한 행동에 대한 격려),

## 심층 분석 보고서: 대우건설-안전

Relationship(상호 관계 형성)의 다섯 단어 머리글자로 만들어진 자체 표준이며, 2015년에 도입했습니다. 모바일 안전관리 앱 'SMARTy'는 작업중지권을 손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설계됐고, 2024년 한 해 동안 7만 5,000건 이상의 사용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사망만인을 목표는 2025년 0.6‰에서 2027년 0.2‰로 설정했고, 2024년 안전보건 예산은 1,351억원이며 최근 3년 누적 약 4,000억원을 집행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 11개 국어 안전보건 교육 자료를 제작·보급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안전혁신정책에서는 800억원 미만 소규모 현장의 안전예산과 감시단 배치 기준을 확대했고, 동절기 한랭질환 예방 기준을 신규로 만들었습니다. CLEAR가 2015년에 만들어졌다는 점이 흥미로운 함의를 갖습니다. 회사는 10년 전부터 자체 안전문화 표준을 운영해온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같은 기간 사망사고는 줄지 않았습니다. 이는 안전문화 표준의 존재 자체가 사고를 줄이지 못하며, 표준의 일상 운영과 의사결정 권한이 함께 작동해야만 결과가 바뀐다는 산업의 일반 명제를 회사 사례로 입증합니다. 김보현 체제의 안전혁신정책은 바로 이 부분, 즉 표준의 일상 운영과 의사결정 권한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3-6. 재무 리스크와 거버넌스 우려

리스크는 명확합니다. 첫째, 주택 의존도가 68%로 높아 시장 사이클에 취약합니다. 둘째, 부채비율이 285%로 동종 업계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이며, 영업현금흐름이 3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셋째, 체코 원전 본계약이 프랑스 EDF 가처분 본안 행정소송으로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넷째, 사망사고 누적이 평판 리스크와 발주처 입찰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섯째, 거버넌스 측면에서 정창선·정원주·김보현으로 이어지는 오너 일가의 의사결정 집중과 견제 장치 약화 우려가 자본시장에서 거론됩니다. 정창선 회장의 손자 정정길씨가 입사 1년 만에 부장으로 합류해 이후 상무A로 승진한 사례는 3세 경영의 시동이라는 시그널이며, 이것이 견제 장치 강화 또는 약화 가운데 어느 쪽으로 작동할지가 향후 1~2년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거버넌스 우려는 안전 의사결정에도 미묘한 영향을 줍니다. 오너 가족이 영업·해외·인사 결정을 한 손으로 쥐는 환경에서 CSO 같은 안전 책임자의 의견이 어디까지 관철될 수 있느냐가 거버넌스 평가의 핵심 질문입니다.

### 3-7. 김보현 체제 1년의 조직 변화

김보현 사장 취임 1년 사이 조직 구조도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CSO를 CEO 직속 전무급으로 운영하면서 2025년 11월 안전 임원 2명을 추가 선임했습니다. 본사·현장 총괄 라인을 분리해 본사 안전실은 정책·시스템·리스크 관리에, 현장 총괄 라인인 110여 개 현장의 점검·교육·사고 대응에 집중하도록 역할을 나눴습니다. 2026년 4월 글로벌인프라본부 신설은 해외사업과 원자력사업을 한 본부로 묶어 의사결정 속도를 끌어올린 결정이며, 이는 체코 원전 본계약과 나이지리아 LNG Train 7 등 해외 거점 사업의 전사 동원력을 강화하는 포석입니다. 12월 정기인사 관행이 깨지고 수시 인사가 일상화되면서 의사결정 사이클이 빨라진 점도 김보현 체제의 특징입니다. 안전 부서 입장에서 이러한 조직 변화는 권한 확대를 의미합니다. CEO 직속 라인이라는 위치는 영업 부서나 공무 부서가 안전 의견을 우회하기 어렵게 만들고, 본사·현장 총괄 라인 분리는 본사 안전실이 정책 결정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주었습니다.

### 3-8. 시장의 재평가: 건설주에서 원전주로

자본시장의 평가도 흥미롭습니다. 2026년 들어 대우건설 주가는 4월 13일 기준으로 521.7% 급등했습니다. KB증권, LS증권, BNK투자증권 등은 리포트에서 "건설주가 아니라 원전주로 재분류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즉 시장은 단기 영업적자라는 충격을 빅배스로 흡수한 뒤, 체코 원전 시공 본계약이라는 단일 모멘텀이 가져올 매출·이익 가시성에 가치를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평가 변화는 인재 시장에도 영향을 줍니다. 안전·플랜트·원자력 인력 수요가 함께 상승하며, 안전 직무의 임원 트랙 가시성도 높아집니다. 회사가 원전주로 재분류된다는 의미는, 회사가 다루는 위험의 종류가 달라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방사선 안전, 핵연료 운반 안전, 고온

## 심층 분석 보고서: 대우건설-안전

·고압 배관 안전 같은 새로운 위험 영역이 안전관리의 일상으로 들어오며,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기술 같은 발주처와의 협업이 늘어납니다. 안전 직무 종사자가 이 흐름에 적응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향후 5년 커리어의 천장이 달라집니다.

### 4장: 인재상/조직문화

#### 4-1. 공식 인재상 키워드와 그 해석

대우건설 공식 채용 페이지에서 도출되는 핵심 키워드는 '도전과 열정', '변화와 혁신', '신뢰와 협력', '글로벌 E&C 리더'입니다. CEO 인사말은 다음과 같이 명시합니다. "끊임없는 도전과 열정, 변화와 혁신, 신뢰와 협력을 통해 고객의 꿈을 가치있게 실현." "창의적인 인재, 그리고 도전정신." 인재상 키워드는 모든 회사에서 비슷하게 보일 수 있지만, 대우건설의 경우 이 키워드들이 회사의 역사와 정확히 호응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외환위기, 금호아시아나 인수, 산업은행 관리, 중흥 인수에 이르는 잦은 위기를 견디고 살아남은 조직의 DNA가 이 키워드에 새겨져 있습니다. 즉 키워드의 본문은 같지만 그 무게는 다른 회사와 다릅니다. 대우건설의 '도전'은 안정된 회사가 새로운 영역으로 뻗어가는 도전이 아니라, 매번 위기를 겪고 살아남는 도전이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 4-2. '대우 프라이드'와 인재사관학교 별명

인사제도 페이지에 등장하는 '대우 프라이드(Pride)'는 잡플래닛 후기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됩니다. "대우라는 프라이드가 남아 있어 종종 타 기업에서 목격되는 패배주의가 만연하지 않다." 대우건설이 외환위기, 금호 인수, 산업은행 관리, 중흥 인수 등 잦은 위기를 견디고도 타사 CEO와 임원을 대거 배출한 '인재사관학교' 별명을 가진 배경이기도 합니다. 즉 대우건설은 좋은 시기뿐 아니라 어려운 시기에도 인재가 자라는 토양을 유지해온 회사이고, 이것이 인재상 키워드의 진정성을 뒷받침합니다. 인재사관학교라는 별명은 양면적입니다. 한쪽에서는 본인의 시장 가치를 빠르게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하고, 다른 쪽에서는 회사가 좋은 인재를 오래 붙들어드지 못한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안전 직무에서도 같은 패턴이 나타납니다. 대우건설 출신 안전 책임자가 다른 시공사 CSO나 안전임원으로 자리를 옮기는 사례가 많고, 이는 회사 안에서 직무 역량을 빠르게 키울 수 있는 환경이라는 의미를 시장에 전달합니다.

#### 4-3. 조직문화의 양면성: 수평성과 가족경영의 그늘

조직문화는 양면을 함께 가진 모습입니다. 한쪽에는 2023년 잡플래닛 '일하기 좋은 건설사' 1위(7.15점, 동문건설과 공동) 평가가 있고, 후기에는 다음과 같은 평이 자주 등장합니다. "전반적으로 굉장히 수평적인 기업 문화." 다른 한쪽에는 중흥 편입 후 후기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중흥에서 인수하여 하락세... 독자경영 약속하고 인수한 거면서 사실상 가족회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수평성과 오너 가족 경영의 그늘이 한 회사 안에 공존합니다. 이런 양면성은 안전 직무 종사자에게도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본사 안전실은 CEO 직속 라인으로 자리 잡으면서 의사결정 권한을 강화한 환경이지만, 인사-평가는 오너 가족의 영향력 안에 있는 환경이기도 합니다. 안전관리자가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할 때 어디까지가 안전한 영역이고 어디부터가 위험한 영역인지를 구분하는 감각이 신입 시기에는 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 4-4. 김보현 체제의 의사결정 스타일

김보현 사장은 군 출신답게 명확한 기준과 원칙의 일관성, 빠른 결정을 의사결정 스타일로 삼습니다. 중흥 체제 도입 이후 12월 정기개편 관행이 깨지고 수시 인사가 일상화되면서, 조직 구성원이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환경이 자리잡았습니다. 새로운 체제에서는 위기 상황에서 빠른 의사결정과 신속한 실행력이 미덕이 되며,

## 심층 분석 보고서: 대우건설-안전

이것이 안전 사고 발생 시 110여 개 현장 작업을 일제히 멈춰 세우는 결정 같은 강력한 조치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군 출신 CEO의 의사결정 스타일은 안전 도메인에 우호적입니다. 안전은 평시에는 비용으로 보이지만 위기 시에는 회사를 지키는 자원이 되는 영역이며, 평시에 자원을 쌓아둬야 위기 때 작동한다는 군의 평소 준비 철학과 결이 같습니다. 김보현 체제 1년의 안전 투자 확대는 이런 철학의 산물이며, 이 흐름은 향후 임기 동안 큰 폭으로 흔들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4-5. 안전 도메인의 7가지 인재 특성: 앞부분

안전 직무 도메인이 요구하는 인재 특성은 일곱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현장 장악력과 단호함입니다. 잡코리아 Q&A 현직자 증언이 핵심을 짚습니다. "현장 기직군은 40~50대가 많아서 올바른 지적을 해도 핸들링하기도 쉽지 않아요. 현실을 아셔야 빨리 적응합니다." 게다가 사고 발생 시 안전관리자가 가장 먼저 문책 대상으로 호출됩니다. 시흥 거북섬 푸르지오 디오션 사망사고에서 대우건설 소속 안전관리자 2명이 업무상과실치사로 입건·송치됐습니다(뉴시스, 2026년 4월 21일). 이 사실 하나가 직무의 무게를 보여줍니다. 회사의 의사결정 라인 가장 위에 있는 CEO와 CSO도 책임을 지지만, 가장 먼저 수사 대상이 되는 사람은 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둘째, 위험 예지 능력(Risk Perception)으로 KYT(위험예지훈련), TBM(Tool Box Meeting), 위험성평가를 주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험 예지는 경험치와 데이터 분석의 결합이며, 같은 작업을 보고도 다른 사람이 못 본 위험을 발견하는 안전관리자는 회사의 사고를 줄이는 핵심 자산이 됩니다. 셋째, 커뮤니케이션과 설득력입니다. 안전관리자는 작업자, 협력사 소장, 발주처, 본사, 노조, 외국인 근로자라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설득해야 합니다.

### 4-6. 안전 도메인의 7가지 인재 특성: 뒷부분

넷째, 법규 지식과 디테일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와 시행령 별표 3·4,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건설기술 진흥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670개 조 이상에 대한 정확한 인용 능력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책임감과 윤리의식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는 자각이 일상의 의사결정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여섯째, 체력과 현장성입니다. 06시 30분에서 18시까지 근무, 주 5일에서 6일, 24시간 비상 대응이 일상이며, 폭염·한파·우천에서도 현장을 지키는 체력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일곱째, 데이터 리터러시입니다. SMARTy, AI CCTV, KRAS(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 같은 디지털 도구의 운용 능력이 빠르게 부상하고 있으며, 향후 5년 안에 이 역량의 격차가 안전관리자 사이의 가장 큰 변별 요소가 될 가능성이 큼니다. 일곱 가지 특성은 어느 하나 빠지면 안전관리자로서 자기 자리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필수 요건입니다. 한국 안전관리자 시장은 자격증을 가진 인력은 많지만, 이 일곱 가지를 동시에 갖춘 인재는 드물기 때문에, 모두 갖춘 인재의 시장 가치는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 4-7.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도메인의 권력 지형 변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도메인의 권력 지형도 바뀌었습니다. CSO 부상이 두드러지지만, 고용노동부 송치 31건이 모두 CSO가 아닌 대표이사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는 사실(법률신문)은 의미가 큼니다. CSO와 안전관리자는 책임을 분담받지만, 대표이사 면책 도구로 자리잡지는 못했습니다. 즉 회사 전체가 안전을 챙겨야 하는 시대이며, 이는 안전 부서가 더 이상 '말단 지원조직'이 아니라 '경영진 옆자리에 앉는 부서'가 됐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권력 지형 변화는 안전관리자에게 더 많은 권한과 더 무거운 책임을 함께 가져옵니다. 권한이 늘어난 부분은 작업종지 결정, 협력사 평가 의견, 본사 자원 동원, 이사회 보고에 대한 접근권입니다. 책임이 무거워진 부분은 형사 입건 가능성, 평가 책임의 가시성, 사고 발생 시 직무 연속성에 대한 위협입니다. 권한과 책임의 동시 확대는 안전관리자라는 직무의 시장 가치를 끌어올리는 동시에, 직무 수행자에게 더 높은 자기관리 능력을 요구합니다.

## 심층 분석 보고서: 대우건설-안전

### 4-8. 채용 프로세스의 흐름과 시그널

채용 프로세스는 서류, 필기(SKCT 유사 직무능력검사), 1차 직무면접, 2차 임원면접, 입사로 이어집니다. TOEIC Speaking 120점 이상 또는 OPIc IM2 이상 어학성적이 필수 요건입니다. 2026년 상반기에는 70명 이상(건축, 토목, 플랜트, 원자력, 안전)을 5월 6일까지 접수받아 7월 입사 일정으로 진행했습니다. 안전 직무가 5개 모집 분야 안에 명시됐다는 사실은 회사가 이 직무에 대한 중기 인력 수요를 본격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시그널입니다. 어학 요건은 해외 사업 확대(체코, 나이지리아, 이라크, 베트남, 투르크메니스탄)와 외국인 근로자 안전 교육이라는 두 흐름을 반영합니다. 5개 모집 분야 가운데 안전을 별도 트랙으로 분리한 것 자체가 산업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5년 전만 해도 시공사 안전 직무는 토목·건축 트랙의 부속 업무처럼 여겨져 별도 트랙이 따로 없는 회사가 많았으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별도 트랙이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 4-9. 일하기 좋은 회사 평판과 후기 데이터

잡플래닛에서 대우건설은 평점 3.5에서 4.0 사이의 후기 767건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일하기 좋은 건설사 1위(7.15점)에 동문건설과 공동으로 올랐습니다. 후기 데이터는 일관된 그림을 보여줍니다. 한쪽에는 수평적 문화, 인재 양성 시스템, 푸르지오 브랜드 자긍심이 있고, 다른 쪽에는 잦은 변화로 인한 피로감, 가족경영의 그늘, 그리고 안전 사고 이슈에 대한 무거움이 있습니다. 후기는 단일 데이터로 신뢰도 한계가 있지만, 수백 건이 누적되면 회사 문화의 평균 양상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후기의 시간적 추이도 흥미롭습니다. 2021년 인수 직후 후기에서는 가족경영 우려가 두드러지지만, 2024년 이후 후기에서는 김보현 체제의 의사결정 속도와 메시지 일관성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늘고 있다는 흐름을 읽을 수 있습니다. 즉 회사의 분위기가 한번에 바뀌지는 않지만, 1년 단위로 본인 경험을 기록하는 후기 데이터는 변화의 방향을 보여주는 약한 시그널로 활용 가능합니다.

## 5장: 직무 분석

### 5-1. 안전관리자의 하루: 새벽 라운딩에서 일보 작성까지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의 하루는 다음 흐름을 따릅니다. 06시 30분에서 07시 사이에 출근해 사전 라운딩을 시작합니다. 07시에서 07시 30분 사이에 TBM(Tool Box Meeting)을 진행합니다. 07시 30분에서 08시 사이에 작업 전 Walk Through로 위험 요소를 점검합니다. 08시 이후 작업허가서(PTW) 발급과 승인을 진행합니다. 오전과 오후 각각 1회 또는 2회 순찰을 돕니다. 13시 이후 협력사 미팅과 시정조치 처리를 진행합니다. 17시에서 18시 사이에 안전점검 일보를 작성합니다. TBM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정기 안전보건교육 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고용노동부 2024년 4월 지침) 안전관리자가 주관하고 기록을 남깁니다. 대우건설은 SMARTy 모바일 앱으로 이를 디지털 관리합니다. 하루의 흐름이 보여주는 핵심은, 안전관리자의 업무가 사무직과 현장직의 중간에 자리한다는 점입니다. 책상 앞에 앉아서 일하는 시간은 일보 작성과 본사 보고가 차지하지만, 그 외 시간은 모두 현장 동선 위에서 흐릅니다. 따라서 안전관리자에게 요구되는 능력은 데스크 워크 능력과 현장 워크 능력의 균형이며, 한쪽이 약하면 다른 쪽으로 만회하기 어렵습니다.

### 5-2. 작업허가서(PTW) 운영의 디테일

PTW(Permit To Work)는 위험도가 높은 작업에 대해 사전 위험 평가와 안전 조치를 확인한 뒤 작업을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소작업(2미터 이상), 굴착(1.5미터 이상), 화기작업, 밀폐공간 작업, 중장비와 양중작업, 철골과 해체와 발파작업. 화기작업의 경우 산소(O<sub>2</sub>), 폭발하한(LEL, 10% 미만), 일산화탄소

## 심층 분석 보고서: 대우건설-안전

(CO), 황화수소(H<sub>2</sub>S) 측정값을 기록하고, 유효기간을 통상 당일로 한정합니다. 밀폐공간 작업의 경우 환기 시간, 산소 농도, 가스 농도, 감시인 배치, 비상 대피 계획을 사전 점검합니다. PTW는 그저 종이 한 장이 아니라 안전 관리자의 의사결정 권한을 시각화하는 핵심 도구이며, 이 도구의 운용 능력이 신입 안전관리자의 초기 평판을 좌우합니다. PTW 운영의 본질은 '거절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영업·공정 압박이 강한 현장에서 PTW 발급을 늦추거나 거절하는 결정은 인기를 얻기 어렵지만, 사고 후에는 그 결정을 내리지 않은 사람부터 추궁받습니다. 즉 PTW는 안전관리자의 직무 정체성을 가장 또렷이 보여주는 영역입니다.

### 5-3. 주간·월간·연간 업무 사이클

주간 단위로는 협력사 안전협의체 회의(산안법 제64조 도급인 의무), 정기교육(매 반기 12시간), 공정회의 안전 의견 제시가 진행됩니다. 월간 단위로는 정기 안전점검(월 2회 이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분기 1회 이상, 노사 등수 구성), KPI 본사 보고가 이뤄집니다. 분기 단위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례화, 사외 안전 감리 점검, 본사 안전실의 통합 진단이 있습니다. 연간 단위로는 안전보건경영계획 수립(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시공능력 1,000위 이내 건설사는 이사회 승인 필수, 산안법 제14조), 위험성평가 정기평가(KOSHA 고시 제2023-19호), ISO 45001과 KOSHA-MS 사후심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지상 31미터 이상 또는 깊이 10미터 이상 굴착) 갱신, 동절기와 하절기 특별 안전관리가 핵심입니다. 업무 사이클의 다중성은 안전관리자에게 시간 관리 능력을 요구합니다. 일·주·월·분기·연 단위 업무가 동시에 진행되며, 어느 한 시점에는 일간 업무가 우선이고 다른 시점에는 분기·연간 업무가 우선이 되는 구조입니다. 신입 안전관리자가 일관된 업무 흐름을 익히는 데 통상 1년에서 2년이 필요한 이유가 이 다중성에 있습니다.

### 5-4. 자격 요건과 선임 기준

자격 요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를 기준으로 산업안전기사와 건설안전기사가 가장 보편적인 신입 자격입니다. 대우건설 안전 직무는 산업안전기사 또는 건설안전기사 가운데 1개 자격증이 필수 조건입니다. 다른 직무에서는 자격증이 우대 사항인 데 반해, 안전 직무에서는 필수 요건으로 명시한다는 점이 차이입니다. 현장 규모별 선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사금액 50억원에서 120억원 사이는 안전관리자 1명, 겸임 가능. 120억원 이상은 1명, 전담. 800억원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600명 이상은 2명 이상. 1조원 이상은 11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으로 안전관리자 3명 이상 사업장은 그 가운데 1명이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건설안전기사에 10년 경력을 더한 인력이어야 합니다. 자격 요건의 의미는 단지 입사 자격에 그치지 않습니다. 자격증의 종류와 경력 연차에 따라 배치 가능한 현장의 규모가 결정되고, 이는 안전관리자의 시장 가치와 평가 가능성을 함께 결정합니다.

### 5-5. 본사와 현장의 역할 분담

신입은 거의 100% 현장 배치를 받습니다. 통상 3년에서 5년 후 본사 발탁 또는 사내 공모로 이동합니다. 본사 안전팀(안전보건경영실, 안전혁신팀, CSO 조직)은 전사 정책, 시스템, 통계, 중대재해 대응을 담당해 경영진 가까이 자리하고, 신입에게는 거의 배치하지 않습니다. 현장 안전관리자가 본사로 이동하기 위한 조건은 통상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무재해 기록과 현장 규모 다양성. 둘째, 산업안전기사를 넘는 추가 자격(건설안전기술사 진행 단계, NEBOSH·OSHA 등). 셋째, 본사 프로젝트 또는 TF 참여 이력. 넷째, 어학 능력(해외사업 확대로 영어, 베트남어, 아랍어 수요 증가). 다섯째, 데이터 리터러시(SMARTy 활용도, KOSHA-MS 인증 실무 경험). 본사·현장 분담은 같은 안전 직무 안에서도 두 가지 경력 트랙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현장 트랙은 깊이 있는 현장 경험을 자산으로 삼고, 본사 트랙은 정책·시스템·데이터를 자산으로 삼습니다. 이상적인 커리어는 두 트랙을 번갈아 거치는 것이며, 그렇게 쌓인 경력이 임원 트랙으로 이어집니다.

## 심층 분석 보고서: 대우건설-안전

### 5-6. 커리어 트랙과 자격 로드맵

커리어 트랙은 신입 안전관리자에서 현장 안전팀장, 본사 안전팀(차·부장), 지역 안전팀장 또는 임원, CSO로 이어집니다. 대우건설 2025년에서 2026년 인사에서 신동혁 CSO 전무 승진과 본사·현장 총괄 임원 2명 신규 선임으로 임원 트랙이 명확화됐습니다. 자격 로드맵은 다음 흐름을 따릅니다. 신입 단계에서는 산업안전기사·건설안전기사를 기본으로 갖춥니다. 중급 단계에서는 위험물산업기사·가스기사 같은 인접 자격을 더해 플랜트와 화학·LNG 현장 대응력을 키웁니다. 고급 단계에서는 건설안전기술사와 산업안전지도사를 목표로 합니다. 국제 단계에서는 NEBOSH(영국), OSHA(미국) 같은 글로벌 자격을 더합니다. 건설기술인 역량지수(ICEC)는 자격(40%), 경력(40%), 학력(20%), 교육(3%)으로 등급을 산정합니다. 자격 로드맵의 끝자락에는 건설안전기술사가 자리합니다. 이 자격은 합격률이 5% 안팎으로 낮은 만큼 시장에서의 희소성이 크고, 한 회사 안에서도 보유자가 한 자릿수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건설안전기술사 보유는 본사 임원 트랙의 사실상 자격 요건이 되며, 향후 5년에서 10년 사이 안전 직무 종사자가 자기 가치를 끌어올리는 가장 빠른 길 가운데 하나입니다.

### 5-7. 협업 이해관계자 맵

협업 이해관계자 맵은 다음 영역으로 구성됩니다. 사내에서는 현장소장, 공사팀, 공무팀, 품질팀, 환경팀, 본사 안전실, 관리감독자가 자리합니다. 사외에서는 협력사 안전담당, 외국인 근로자, 감리가 있습니다. 공공 영역에서는 KOSHA(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국토교통부, 검찰, 경찰이 자리합니다. 기타 영역에서는 노조,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보험사, 발주처 안전감독자가 있습니다. 건설현장 근로자의 60%에서 70%가 외국인이라는 점이 한국어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실효성 논란을 낳고 있어, 다국어 표지, VR 안전체험관, 켐토피아 '안전 다통해' 같은 AI 통·번역 앱 도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 맵의 복잡성은 안전관리자에게 정치적 감각을 요구합니다. 같은 사고를 두고도 발주처는 시공사 책임을 강조하고, 협력사는 원청 의무를 강조하며, 노조는 노동자 보호를 강조하고, 검찰은 형사 책임을 따집니다. 각 이해관계자의 관점을 빠르게 읽어내고 자기 회사의 입장을 일관되게 전달하는 능력이 신입 시기를 지나면서 점점 중요한 역량으로 부상합니다.

### 5-8. KPI와 평가 포인트

KPI는 정량 지표와 정성 지표 두 영역으로 나뉩니다. 정량 지표에는 무재해 일수와 시간, 사망사고 ZERO, 재해율 만인율, 안전점검 횟수, 시정조치율 95% 이상, 시정조치 완료기간 7일 이내, 교육 이수율 100%, 위험성평가 실시율 100%이 들어갑니다. 정성 지표에는 KOSHA-MS와 ISO 45001 인증 유지, 고용노동부 우수사업장 선정, 국토부 안전관리 수준평가 등급, ESG 'S' 평가 결과가 포함됩니다. 회사 단위에서는 사망만인율, 재해율, ESG 등급이 시공능력평가에 반영되며, 이것이 발주처 입찰 자격, 신용평가, 자금조달 비용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즉 안전관리자의 KPI 달성은 본인 평가뿐 아니라 회사 전체의 영업·재무 지표로 환산되는 구조입니다. KPI 가운데 사망사고 ZERO는 가장 강한 변별 지표입니다. 한 건의 사망사고가 한 해의 모든 다른 KPI 성과를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자의 일상 의사결정은 사망사고 가능성이 높은 작업을 어떻게 선제 통제하느냐에 가장 큰 비중을 둡니다.

### 5-9. 스마트 안전기술의 도입과 안전관리자 역할 변화

스마트 안전기술이 안전관리자의 역할을 바꾸고 있습니다. 2024년 건설업 사망자 207명 가운데 106명(51%)이 추락 사망인 만큼, AI CCTV의 안전모 미착용 자동 감지, 위험구역 침범 감지, 추락위험 자세 자동 감지가 핵심 기술로 자리잡았습니다. 대우건설의 DSC(Daewoo Smart Construction), SMARTy 모바일 앱, 디나르샤(Dnarsha) 드론 플랫폼, 대우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2025년 3월 출범), DSG(대우스마트갱폼, 갱폼 인양 자동화로 인력 1~2명 축소·원가 30% 축소)는 회사가 스마트 안전기술에 투자하고 있다는 가시적 증거입니다. 정일

## 심층 분석 보고서: 대우건설-안전

국 스마트건설기술팀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DSC를 활용하면 현장에서 원가를 10% 이상 줄일 것이다." 이 발언은 안전이 비용이 아니라 ROI를 가진 투자임을 회사가 공식화한 시그널입니다. 즉 안전관리자는 위험 통제자에서 데이터 운영자로 역할이 바뀌고 있으며, 향후 5년 안에 이 변화 속도가 가속할 전망입니다. 스마트 안전기술이 자리잡으면 안전관리자의 일하는 시간 가운데 현장 라운딩 비중이 점점 줄고, 모니터링과 데이터 분석 비중이 점점 늘어납니다. 다만 라운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데이터 분석이 잡아내지 못하는 미세한 위험 신호(작업자의 표정, 협력사 분위기, 자재 정리 상태)는 여전히 사람이 봐야 하는 영역으로 남습니다. 즉 안전관리자에게는 데이터 분석 능력과 현장 감각을 함께 운영하는 이중 역량이 요구됩니다.

### 5-10. 대표 업무 시나리오

대표 업무 시나리오는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신규 현장 착공입니다. 안전관리자는 착공 30일 전부터 안전관리계획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 조직도, 비상연락망, 응급의료체계, 외국인 근로자 다국어 교육 자료, PTW 양식, KYT·TBM 일정을 준비합니다. 착공 첫날에는 발주처와 합동 안전점검을 거쳐 KOSHA에 신고합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정기 안전점검입니다. 월 2회 이상 정기점검을 거쳐 발견 사항을 KRAS에 입력하고, 7일 이내 시정조치 완료를 추적합니다. 시정조치 완료가 어려운 사항은 본사 안전실로 보고해 자원 배분을 요청합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사고 발생 대응입니다. 사고 발생 후 1시간 안에 119 신고와 응급 의료 조치, 발주처 통보, 본사 보고를 진행합니다. 24시간 안에 사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KOSHA·고용노동부에 신고합니다. 1주일 안에 사고 조사위원회를 열어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합니다. 1개월 안에 유사 현장 전체에 대한 점검을 끝내고 본사에 결과를 보고합니다. 세 시나리오 모두에서 공통점은 시간 압박입니다. 착공 30일 전, 7일 이내 시정조치, 1시간 안 신고, 24시간 안 보고서, 1주 안 조사위원회, 1개월 안 유사 현장 점검 같은 시간 기준은 안전관리자의 일정 관리 역량을 끊임없이 시험합니다. 이 시간 기준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시간이 신입 안전관리자가 한 사람 몫을 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며, 통상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가 시장의 평균 값입니다.

### 5-11. 향후 5년 직무 변화 전망

마지막으로 향후 5년 직무 변화의 전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본사 안전실의 정책·데이터 역량이 강화되고, 현장 안전관리자의 데이터 리터러시 요구가 평균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둘째, 해외 사업 확대로 안전관리자의 어학 요구가 커지며, NEBOSH·OSHA 같은 국제 자격 보유자의 시장 가치가 빠르게 상승합니다. 셋째, ESG 평가가 시공능력평가의 핵심 변수로 자리잡으면서, 안전관리자의 KPI가 회사 IR·신용평가와 연동됩니다. 넷째, CSO 위상이 사장급으로 격상되는 회사가 늘어나고, 그 아래 안전 임원 자리가 함께 늘어나면서 안전 직무의 임원 트랙 가시성이 평균 이상으로 향상됩니다. 다섯째, 스마트 안전기술의 적용 범위가 시공 단계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안전관리자의 일하는 방식이 전통 라운딩 중심에서 데이터 모니터링과 현장 감각의 결합 중심으로 바뀝니다. 이 다섯 흐름은 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안전 직무가 회사의 주변부 지원 부서에서 회사의 전략 자원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그 흐름을 빠르게 읽고 본인의 역량을 키우는 안전관리자가 향후 10년 시장에서 가장 가치 높은 인력으로 자리잡는다는 점입니다.

## 참고 레퍼런스 (References)

### 산업·규제

1. 고용노동부 2024년 산재 부가통계  
—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7595](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7595)

## 심층 분석 보고서: 대우건설-안전

---

2. 비즈한국 10대 건설사 산재 단독 — <https://www.bizhankook.com/bk/article/29582>
3. CERIK 건설동향브리핑 입법동향 — <https://www.cerik.re.kr/uploads/report/3009/>
4. Lexology 노동안전 종합대책 — <https://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13f9c91c-82bd-4625-b08e-c66cdc9c641e>
5. 김·장 중대재해처벌법 분석 — [https://www.kimchang.com/ko/insights/detail.kc?sch\\_section=4&idx=32260](https://www.kimchang.com/ko/insights/detail.kc?sch_section=4&idx=32260)
6. KCGS ESG 보도자료 — [https://www.cgs.or.kr/news/press\\_view.jsp?no=220](https://www.cgs.or.kr/news/press_view.jsp?no=220)
7. 삼일PwC 부동산PF 위기 대응 — <https://www.pwc.com/kr/ko/insights/industry-focus/project-financing-review.html>
8. 헤럴드경제 2025 해외건설 수주 —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652196>

### 건설사 비교·대우건설 포지셔닝

9. 국토부 2025 시공능력평가 —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epage=1&id=95091108](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epage=1&id=95091108)
10. 더벨 10대 건설사 CSO 서베이 — <https://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601221311373080106958>
11. 매일노동뉴스 중대재해 분석(2026.4.22) — <https://v.daum.net/v/20260422063234746>
12. 메디컬투데이 대우건설 사망사고 최다 — <https://www.mdtoday.co.kr/news/view/1065582927994139>
13. 데일리안 시흥 사망사고 김보현 사과 — <https://m.dailian.co.kr/amp/news/view/1546972>
14. 베타뉴스 CLEAR 결의대회 비판 — <https://www.betanews.net/article/view/beta202509170079>

### 대우건설 심층

15. 딜사이트 대우건설 빅배스 — <https://dealsite.co.kr/articles/156664>
16. 한국경제 김보현 2026 신년사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10519486>
17. 비즈니스포스트 김보현 Who Is — [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84542](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84542)
18. 헤럴드경제 일본 협력 MOU —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719423>
19. 한국일보 대우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32009140003492>
20. 문화일보 대우건설 DSC 시스템 — <https://www.munhwa.com/article/11452658>

